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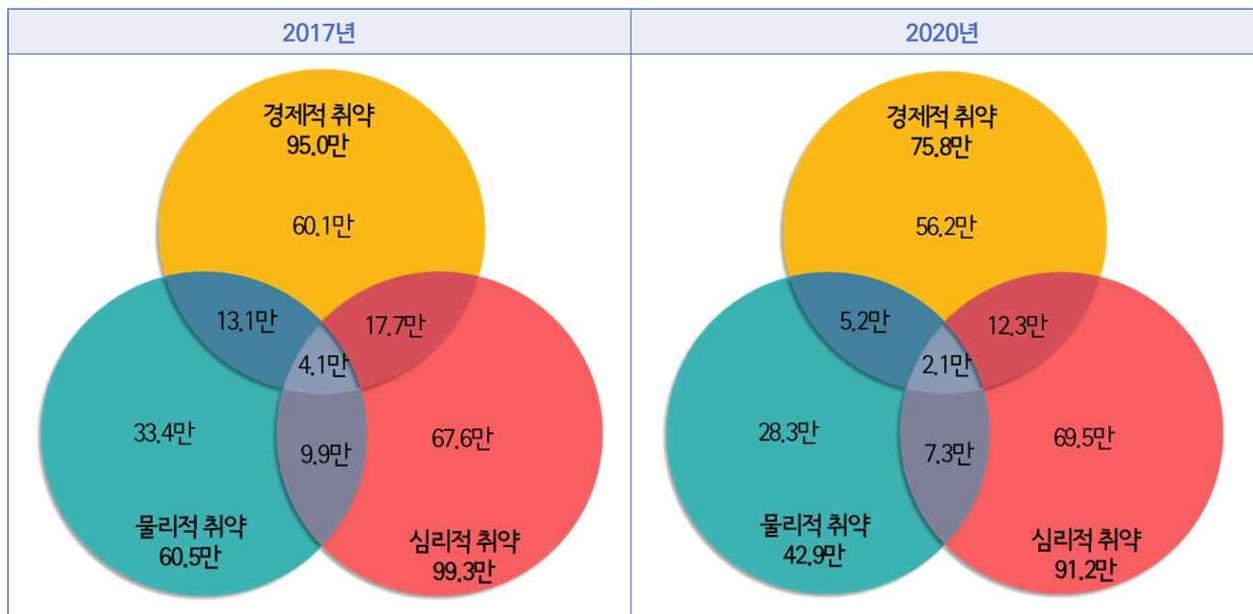
	보 도 자 료	
	작성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 (mspark@krihs.re.kr, 044-960-0294)
	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 홍보출판팀 박순업 팀장(044-960-0428)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研, 워킹페이퍼(WP 22-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운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별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고,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청년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이를 위해 청년가구를 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하여 주거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고,
 -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거의 질적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은 부모 동거 이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독립보다 단독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득 수준 향상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10년 전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의 청년 1인가구 주택유형이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주택 이외의 거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을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한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최소 2.1만~최대 181.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청년가구는 약 181.0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의 4.1만 가구, 205.8만 가구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취약(주거비 과부담: RIR30% 이상) 청년은 75.8만 가구로 이 중 58.7%는 청년 1인가구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5%가 거주하고 있다.
-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9만 가구로 이 중 청년 1인가구가 절반 이상(53.8%)이며, 수도권에 77%가 거주한다.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 심리적 취약(주관적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청년 1인가구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경우도 7.3만 가구에 달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주거취약 중첩가구 규모



출처: 국토교통부 2010·2017·2020.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가구의 가구형태별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대상과 집중할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지난 3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비해 수도권 청년 1인가구의 미달규모만이 증가한 것은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 독립한 청년은 혼자 살며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 17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구분	2017(A)								
	월세보조	전세대출	구입대출	개량 개보수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거상담	계
전체가구	10.4	18.7	30.1	9.5	8.0	15.0	5.9	2.5	100.0
청년가구	11.1	21.5	31.4	5.8	9.1	12.7	6.3	2.1	100.0
청년1인	26.9	28.4	15.6	0.8	9.7	11.2	6.1	1.2	100.0
청년부부	3.4	23.9	43.7	3.5	8.4	9.2	5.7	2.2	100.0
부모동거	6.2	16.2	34.7	10.0	8.9	15.0	6.5	2.5	100.0
기타동거	20.5	26.8	11.2	2.6	12.8	16.6	7.4	2.1	100.0

구분	2020(B)								
	월세보조	전세대출	구입대출	개량 개보수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거상담	계
전체가구	9.8	24.5	34.6	6.9	5.4	11.6	5.3	1.9	100.0
청년가구	10.3	29.3	33.7	4.6	5.3	10.2	4.9	1.7	100.0
청년1인	22.3	43.2	13.5	1.3	4.2	10.7	3.8	1.0	100.0
청년부부	3.2	30.0	46.8	2.0	6.3	5.0	5.6	1.1	100.0
부모동거	4.4	18.1	43.2	8.5	5.1	12.4	5.7	2.5	100.0
기타동거	19.2	32.9	16.5	4.0	9.8	14.4	2.2	1.0	100.0

구분	증감(%) (B-A)								
	월세보조	전세대출	구입대출	개량 개보수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거상담	계
전체가구	-0.6	5.8	4.5	-2.6	-2.6	-3.4	-0.6	-0.6	-
청년가구	-0.8	7.8	2.3	-1.2	-3.8	-2.5	-1.4	-0.4	-
청년1인	-4.6	14.8	-2.1	0.5	-5.5	-0.5	-2.3	-0.2	-
청년부부	-0.2	6.1	3.1	-1.5	-2.1	-4.2	-0.1	-1.1	-
부모동거	-1.8	1.9	8.5	-1.5	-3.8	-2.6	-0.8	0.0	-
기타동거	-1.3	6.1	5.3	1.4	-3.0	-2.2	-5.2	-1.1	-

주1: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2010년은 주거지원프로그램 보기 문항 구성이 달라 시계열 비교 어려움.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